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혁명사상 만세!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106호 [루계 제25615호] 주제 106 (2017)년 4월 16일 (일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탄생 105돐 경축 열병식 및 평양시군중시위 성대히 거행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참석하시였다

조선로동당의 령도따라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전구마다에서 전례없는 대승리, 독대사변들을 편이여 이룩하며 최후승리를 향하여 폭풍처럼 내달리는 주체조선의 만리마기상이 만방에 펼쳐지고 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전제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105돐을 민족최상최대의 경사스러운 명절로 뜻깊게 맞이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탄생 105돐 경축 열병식 및 평양시군중시위가 4월 15일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 성대히 거행되였다.

열병식 및 군중시위가 진행될 김일성광장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창시하시고 우리 당과 군대, 국가를 창건하시였으며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이 자주, 선군, 사회주의의 길을 따라 승승장구할수 있는 만년기틀을 마련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과 다함없는 경모의 정으로 세차게 끓어번지고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태양상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태양상이 광장정면에 정중히 모셔져있었다.

광장상공에는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 만세!》,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 만세!》, 《백전백승의 불패의 당 조선로동당 만세!》, 《영웅적조선인민군 만세!》의 구호들과 《결사옹위》, 《일심단결》이라고 쓴 글발을 드려온 대형기구들이 피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가장 숭고한 경의와 영원무궁한 영광을 드립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은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자!》, 《수령부》, 《장군복》, 《최후승리》 등의 구호들과 글발들, 조선로동당기, 공화국기, 최고사령관기가 광장주변 건물들에 드리워져있었다.

기갈계양대들은 조선로동당기와 공화국기들이 나뭇기고있었다.

주석단에는 조선인민군 육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로농적위군 군기가 세워



조선인민군 육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로농적위군 명예위병대의 영적의식이 진행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육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로농적위군 명예위병대 대장이 영접보고물 드려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 육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로농적위군 명예위병대를 사열하시였다. 환영곡이 울리는 가운데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광장주석단에 나오시였다.

순간 폭풍같은 《만세!》의 우렁찬 환호성과 《김정은》, 《결사옹위》 등의 합성이 하늘을 진감하고 수많은 고무풍선이 날아오르는 광장상공에 경축의 축포가 리져 울렸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열광의 환호를 울리는 열병식 참가자들과 군중들에게 손저어 따듯이 답례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김영남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인 조선인민군 차수 황병서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최룡해동지가 주석단에 나왔다.

당과 국가, 군대의 책임일꾼들인 김기남동지, 최태복동지, 리수용동지, 박영식동지, 양형섭동지, 리수용동지, 김범해동지, 리만건동지, 오수용동지, 박범기동지, 김영철동지, 최부일동지, 로무철동지, 리용호동지, 김수길동지, 박태성동지, 김봉오동지, 조연준동지, 노광철동지, 리영길동지와 도당위원장들, 조선인민군 지휘성원들이 주석단에 자리잡았다.

져있었으며 명예위병들이 서있었다.

초대석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탄생 105돐 경축행사 대표들, 당, 무력, 정권기관, 근로단체, 성, 중앙기관 일군들, 조선인민군, 조선인민내무군 장병들, 공로자들이 자리잡고있었다.

태양절경축 제일본조선인민군을 비롯한 해외동포축하단, 대표단들, 해외동포들, 반제민족민주전선 평양지부 대표가 초대되였다.

또한 주조 외교 및 국제기구 대표부부들, 무관부부들, 대사관성원들, 태양절 경축행사에 참가하기 위해 우리 나라에 온 외국 손님들과 체류하고있는 외국인들이 여기에 초대되였다.

총대로 개척되고 전진하여온 혁명의 년대마다 주체혁명위업을 총정리로 받들어온 영웅적조선인민군에 대한 우리 인민의 신뢰심이 온 광장에 굽이치는 가운데

위풍당당한 혁명군대의 정규화적면모를 보여지며 열병총대들이 보무당당히 입장하였다.

광장과 잇닿은 대동로들에는 주체의 건군사에 특기할 사상최대규모의 열병식, 우리 식의 새롭고 특색있는 열병식을 거행할 무적필승의 최정예의 전투대들을, 첨단무기와 전투기술기제로 장비된 기계화총대들이 정렬해있었다.

전제 열병대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슬하에서 창건되고 강화발전되어온 혁명적무장력의 성스러운 행로를 긍지높이 돌이켜보며 선군의 기치, 병전의 보검으로 억척같이 다져온 주체조선의 무적막강한 군력과 자위적국방공명의 위력을 힘있게 과시할 열의안고 열병의 시각을 기다리고있었다.

위대한 태양의 존함으로 빛나는 주체조

선의 자랑찬 승리와 영광의 력사, 일심단결과 지력지강의 위력으로 새로운 만리마기대를 펼쳐가는 강용한 우리 인민의 무쟁을 대서사적화적으로 펼쳐보이게 될 군중시위대오마다에도 커다란 긍지와 자부심이 넘쳐있었다.

민족최대의 명절을 성대히 경축하게 된 우리 군대와 인민의 팔없는 환희가 차넘치는 광장에 종합군악대가 입장하여 솟아오르는 태양을 형상하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인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광장에 도착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를 당과 국가, 군대의 책임일꾼들과 해외동포축하단 단장들이 맞이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를 맞이하는

4 번 으 로 계 속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래양절에 즈음하여 금수산래양궁전을 찾으시였다



불멸의 태양기를 전투에 날리며 자주, 선군, 사회주의의 한걸음 따라 힘찬 진군을 다그치고있는 온 나라 천만근민은 우리 당의 강국건설위업수행에서 세기적 변혁을 이룩한 크나큰 공지와 자부심을 안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105돐을 뜻깊게 경축하고있다.

인류의 태양, 불세출의 위인을 높이 모신 민족대통운의 날이 있어 주체년도로 빛나는 현대조선의 무궁장창한 미래가 열리었으며 위대한 주체사상과 자력자강의 동력으로 승리하며 전진하는 조선혁명의 자랑스러운 력사와 전통, 사회주의위업의 최후승리를 위한 억년기쁨이 마련되었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래양절에 즈음하여 4월 15일 금수산래양궁전을 찾으시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송고한 경의를 표시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

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김영남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인 조선인민군 차수 황병서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내각 총리인 박봉주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최룡해동지께서 영생의 모습으로 계시는 주체의 최고성지 금수산래양궁전을 숭엄한 분위기에 힘써여있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송고한 경의를 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립상량연에는 당기와 공화국기들이 세워져있었으며 조선인민군 육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로동적위군명예위병대가 정렬해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립상을 우러러 조선인민군 육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로동적위군명예위병대 대장이 영접보고를 드리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립상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가 진정되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립상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의 공동명의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의 공동명의로 된 꽃바구니들이 진정되었다.

꽃바구니들의 명기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글말이 써여져있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참가자들과 함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립상을 우러러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영생홀에 들어서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께 가장 경건한 마음으로 송고한 경의를 표시하시면서 참가 인사를 드리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훈장보존실, 사적렬차, 사적승용차보존실들을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영생홀에 들어서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위대한 장군님께 가장 경건한 마음으로 송고한 경의를 표시하시면서 참가 인사를 드리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훈장보존실, 사적승용차와 전동차, 배, 련차보존실들을 돌아보시였다.

전체 참가자들은 우리 혁명과 건설에서 이룩된 모든 승리와 변혁, 사회주의조국의 통성변영과 인민의 후손만대의 행복이 뜻깊은 태양절과 잇닿아있음을 다시금 뜨겁게 되새기면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필생의 뜻과 념원을 빛나는 현실로 꽃피우는 성스러운 투쟁에서 시대의 기수, 혁명의 지휘정원으로서의 본분을 다해나갈 맹세로 가슴 불태웠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혁명생애와 업적을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만리마속도로 북돋아 나가는 사회주의강국건설위업의 창창한 미래와 더불어 영원불멸할것이며 태양의 역사는 천만년 빛날것이다.

본사정치보도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스위스단체들이 선물을 드리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적도기배공화국 대통령이 꽃바구니를 보내어왔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2017년 주체사상연구소조가 공동명의로 선물을
백두산위인정충대회 스위스준비위원회, 드리였다.
김일성주석 탄생 105돌경축 스위스 래양절에 즈음하여 위대한 수령님께
준비위원회, 스위스조선위원회, 스위스 드리는 선물을 8일 2017년 백두산위인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공화국 대통령이 꽃바구니를 보내며 꽃바구니의 명기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래양절에 즈음하여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에 14일 꽃바구니가 진정되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금수산래양궁전을 찾아 외국손님들과 해외동포들 경의 표시

만민의 다함없는 흠모를 받으신 히세의 정치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래양절에 즈음하여 15일 금수산래양궁전을 찾아 주석외로 및 국제기구 대표들, 무관들, 여러 나라 당대표들, 주체사상연구조직 대표들, 대표들, 제19차 김일성희곡작가자살, 태양길경축 세일본조선인축하단, 태양길경축 새중조선인총련합회측하단, 해외연고자가족들을 비롯한 외국손님들과 해외동포들이 경의를 표시하였다.

그들은 주체의 광휘로운 빛으로 시대의 앞길을 밝혀주시고 인류자주위업수행에 불멸의 공헌을 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경의의 정을 안고 절세위인들의 립상을 우러러 송고한 경의를 표시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영생홀에서 그들은 수령님들께 참가 인사를 드리였다.

외국손님들과 해외동포들은 훈장보존실들과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생애의 마지막 시기까지 현지도와 외국방문의 길에서 리용하신 승용차와 전동차, 배, 련차보존실들을 주의깊게 돌아보았다.

그들은 방문록에 글을 남기였다.

이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금수산래양궁전을 찾아 만세민족민주조선 평양지부 대표와 지부성원들이 경의를 표시하였다.

본사기자

태양길경축 배우중앙집회 7일 리미에서 진행되었다.

집회에는 2017년 백두산위인정충대회 아메리카지역준비위원회 공동위원장인 배우로동자, 농민, 학생인민전선 위원장, 태양길경축 배우준비위원회 위원장인 배우공산당(붉은 조국) 국제부서, 자유투표동맹을 위한 배우민족독립운동 위원장, 배우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소 조서기장, 주체선군정치연구 배우-조선인민회의 위원장, 배우조선전선문화회의 서기장, 배우근로자총련합 집행위원 겸 항구로조 총서기 등 여러 정당, 단체, 기관의 인사들과 군중들, 이 나라 주체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와 대사관성원들이 참가하였다.

집회에서는 연설들이 있었다.

배우로동자, 농민, 학생인민전선 위원장을 비롯한 연설자들은 조선인민과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마음속에 영생하시는 김일성동지의 탄생 105돐에 즈음하여 위인의 고귀한 한평생을 다시금 돌이켜 보고있다고 언급하였다.

김일성동지는 진정한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자애로운 아버지이시였으며 만민의 다함없는 흠모를 받으신 최세의 정치가이시였다고 하면서 그들은 세기를 이어 길이 빛날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신 불세출의 대성인을 열렬히 칭송하였다.

또한 김일성동지와 똑같은 김일성동지를 모시어 승승장구

은 조선은 오늘 김정일최고시령관의 령도를 받는 불멸의 강국으로 더욱 위용떨치고있다. 조선인민이 야말로 대대로 걸출한 수령들을 모신 위대한 인민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들은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는 진보적인류의 심장속에 영생하시며 세계인민들을 이끌어 주시길 바란다. 그분들께 최대의 경의를 드린다고 말하였다.

본사기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탄생 105돌경축 열병식 및 평양시군중시위 성대히 거행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참석하시였다



열 병 식 및 평 양 시 군 중 시 위 에 서 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최룡해동지의 축하연설

영광한 조선인민군 장병들과 조선인민내무군 장병들!
우리의 혁명무력의 각 공군, 병종 부대들과 군위부대들에서 선발된 열병부대 지휘관, 전투원동지들!
로동적 위군과 젊은청년군위대 대원들!
은 나라 근로자들과 존경하는 평양시민여러분!
해외동포들과 외국 의 벗들!
오늘 우리는 사회주의승리의 미명을 찬연히 안아온 승리의 긍지와 환희에 넘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탄생 105돌경축 열병식과 평양시군중시위를 성대히 거행하게 됩니다.
오늘의 대규모열병식과 군중시위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의 성스러운 혁명위업을 드림없이 이어가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후손, 위대한 장군님의 전사, 제자들이 거룩하신 수령님들께 드리는 자랑스러운 충정의 보고입니다.
최상최대의 경사스러운 명절인 태양절을 맞은 뜻깊은 이 자리에서 전제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의 열의같은 마음을 담아 주체의 태양이시며 민족의 어머니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가장 숭고한 경의와 영원무궁한 영광을 삼가 드립니다.
그리고 위대한 수령님들의 건설한 혁명전위, 혁명동지로 간고한 우리 혁명력사의 갈피갈피에 애국충정의 고귀한 보물을 새긴 항일혁명선열들과 인민군정사들, 애국렬사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사회주의강국으로 향한 만리마대전진에서 혁혁한 기적적 성과를 이룩하고 4월의 봄명절을 맞이한 전제 군대와 인민에게 뜨거운 전무적인사를 보냅니다.
아름다운 자리에 참석한 여러 해외동포들과 외국 의 벗들!
동지들!
전진하는 사회주의의 강요한 기상이 차넘치는 조국의 중심 김일성평장에서 우리들은 새로운

주체100년대의 첫걸음을 엄숙히 내디딘 잊지 못할 그날을 감회깊이 돌이켜보고있습니다.
조국과 혁명, 후손대대를 위하여 너무도 크나큰 업적을 남기시고 세계에 유일무이한 주체의 사회주의를 유신으로 물려주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앞에 끝까지 참되리라 심장으로 맹약한 우리 군대와 인민이였습니다.
매양조선혁명의 국공으로 되였습니다.
역사적인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를 통하여 우리는 주체혁명위업 수행에서 천만년 드는지 않을 기쁨을 마련하고 최후승리의 직전주도로 질풍노도처럼 나아간다는것을 당당히 선포하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행실이 모든 자위의 군력을 무진막강하게 다진것은 우리가 이룩한 중대한 성과입니다.
우리의 혁명무력은 그 어떤 강적도 격멸소탕할수 있는 최강의 전투력을 갖추고 사회주의성세, 세계평화를 수호의 진초심을 역력같이 지키고 있으며 주체적국방공업은 세계가 아직 알지 못하는 첨단무기들을 열이 만들어내는 개발창조형의 혁명공업으로 비약하였습니다.
백두대산에서 울린 항일대전의 첫 총성이 오늘날 제국주의의 멸망 을 예고하는 주체조선의 장대한 수호탄핵음으로 이어지고 동방의 핵강국, 아시아의 로케트대륙의 축조성으로 메리리치고있습니다.
이 경이적인 현실이야말로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넘겨주신 혁명의 용대를 필승의 보검으로 역세게 풀어낸 선군조선, 명진의 조국에서만 창조될수 있는 역사적 기적입니다.
오늘의 성대한 열병평장에서 우리는 인민의 고귀한 피와 땀이 응축된 정의의 력으로 주체의 력을 무지비하게 짓누르고 조국과 인민을 지킬 만단의 배설을 전지하고있는 것을 당당히 자랑할수 있습니다.
자강력제일주의와 만리마추도는 위대한 장군님을 신비하듯이 우리 당을 절대적으로 믿고 인민 대중에일주의정치와 병진로선을 전적으로 지지옹호하였으며 대중적영웅주의를 발휘하여 사회주의의 무궁무진한 발전잠재력을 남김없이 과시하였습니다.
오늘에 와서 미성을 잃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우리 식 사회주의의 불가항적실체와 우리 당 병진 로선에 대하여 감히 부인할수도 없을 당당히 실현해나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강렬한 열망과 진인불망의 헌신적투쟁에 의하여 조국의 방방곡곡에서 천지개벽과 같은 건설신화들이 다발적으로, 연방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세기를 주름잡은 전진적인 선리마시대가 세계를 당당히 앞서나가는 만리마시대로 이어지고 주체조선의 장대한 국력을 광활한 우주로 뻗어오르고있습니다.
최상의 문명을 최고의 수준에서 창조해나가는 눈부신 현실은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커다란 힘과 용기를 더해주고있으며 끝없이 통일전쟁에 대한 장기전의 고원암살책동을 펼친 통가하는 사상 최약의 초강도 위협과 야만적인 제세봉쇄에 집착하며 만발내적발악을 다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체를 거둬주고 지냈것은 제국주의만물이었으며 온갖 도전을 막고 금상첨가것은 사회주의의 우리 국가였습니다.
수명의 혁명사상과 단고업적을 교과서로 하여 승리의 지름길을 찾은 수명에 대한 백승같은 총성과 의리로 실정의 피를 흘리는 군대와 인민의 전진을 그 어떤 비활한 연합공세도, 전진의 난과도와 참혹한 대제양도 도저히 범하지할수 없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을 신비하듯이 우리 당을 절대적으로 믿고 인민 대중에일주의정치와 병진로선을 전적으로 지지옹호하였으며 대중적영웅주의를 발휘하여 사회주의의 무궁무진한 발전잠재력을 남김없이 과시하였습니다.
오늘에 와서 미성을 잃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우리 식 사회주의의 불가항적실체와 우리 당 병진 로선에 대하여 감히 부인할수도 없을 당당히 실현해나가는 우리

세상에서 제일 좋은 인민, 수령님들과 맺은 정을 피중처럼 간직하고 일면단심 당을 따라 영연히 한걸음 가는 참으로 충직하고 강인하며 아름답고 훌륭한 군대와 인민과 함께 무장하는것은 우리 당과 국가의 더없는 영광이고 자랑이며 행운입니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으로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위엄에 따라 주체혁명위업의 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지니고 한치의 드림도, 한걸음의 양보도 없이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 다진 명세를 빛나게 실천해온 전제 당원들과 인민군 장병들과 인민들께서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동지들!
지난 5년간에 거둔 승리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애국헌신, 강국헌신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첫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전제 인민에게 세상에 부러웠던 사회주의만물을 안겨주고 자라나는 새 세대들이 통일된 삼천 리강산에서 마음껏 뛰놀게 하자면 배배, 전대의 힘을 모아 더 힘차게, 더 열심히 투쟁하여야 합니다.
우리의 영리한 수령이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처럼 조국을 열렬히 사랑하고 인민에게 열사 복무하며 혁명사업을 대담하고 능숙하게 전개해나가는데 수령님의 본분을 다하는 길입니다.
오늘의 시대는 만리마시대이며 만리마는 인민의 최고리상을 투쟁 강령으로 내세운 조선혁명가들의 비상한 혁명적열정과 내재하는 기상을 상징하고있습니다.
동지들!
오늘 국제무대에서는 자주와 평화를 바라는 인류의 공통된 지향에 역행하고 도전하는 침략과 강권 행위들이 로발되고있습니다.
미국의 새 행정부는 주권국가에

대한 군사적공격을 꺼리낌없이 감행하면서 세계평화와 안전을 엄중히 위협하고있습니다.
미국은 조선반도에 핵전략자산들을 대대적으로 끌어들이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광란적인 핵전쟁 도발책동을 벌리면서 일촉즉발의 위험한 전쟁국면을 조성하고있습니다.
우리 공화국은 평화에초적인 사회주의국가로서 누구보다도 평화를 기쁘히 여기고 사랑하지만 결코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피하려 하지도 않습니다.
만일 미국이 무모한 도발을 걸 어온다면 우리 혁명무력은 즉시 심혈전인 라격을 가할것이요, 핵전쟁에는 전면전쟁으로, 핵전쟁에는 우리 식의 백라격전으로 대응할것입니다.
동지들!
자주, 선군, 사회주의의 불변원리를 따라 끝마로 나아가는 주체조선의 장엄한 전군을 가로막을 힘은 이 세상에 없으며 이 하늘아래, 이 땅우에는 사회주의성공품, 인민의 리상사회가 누누시게 갖추어놓겠습니다.
우리 모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태양기를 진전에 휘날리며 주체혁명의 새 승리를 향하여 총배전해나갑시다.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 만세!
조선로동당의 위대한 명도자이시며 백전백승의 기치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만세!
우리 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항도자인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 만세!



지난 5년간의 빅한 투쟁은 수령의 사상과 위업을 총직하게 받들어나가는 당과 국가, 군대와 인민에게는 오직 승리와 영광만이 있다는 철리를 다시금 확증하였습니다.
역사의 생는길을 헤쳐온 보람찬 행진에서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펼쳐주신 주체의 대로를 따라 영연히 승승장구해 나감수 있는 정치적준비를 강력하게 갖추었습니다.
우리 천만인민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태양상이 빛나고 위대한 수령님들의 영생을 지켜 드리는 숭고한 도덕의리상과 결사의 실현은 혁명의 전진속도를 비상이 높이는 원동력으로 되였습니다.
영생불멸의 김일성-김정일주의가 혁명의 지도사상으로 빛을 뿌리고 우리 당과 국가, 군대는 명실공히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당과 국가, 군대로 강화되었으며 수령의 유순한철정으로 일심일체를 이루고 기적을 창조한것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탄생 105돌경축 열병식 및 평양시군중시위 성대히 거행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참석하시였다



1 번 으 서 계 속

원순회 총련중앙상임위원회 고문, 최은복 제중조선인총련합회 의장이 주석단에 나왔다.

조선인민군 명예위병대와 통합군악대가 《4.15》, 《105》와 오각별 찬란한 조선인민군보표를 형상화한 《당군》이라는 글발을 새기며 시작예식을 진행하였다.

애국가와 《놀이 날려라 우리의 당기》의 노래가 장중하게 주악되는 가운데 조선인민공화국 국기와 조선로동당기가 제양되었다.

열병부대지휘관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무력상에게 열병부대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탄생 105돌경축 열병식 준비경열을 밝기 위하여 정렬하였다는 것을 보고하였다.

인민무력상이 열병부대를 사열하면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105돌을 축하하였다.

전체 열병대원들은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부무함!》이라고 힘차게 화답하면서 위대한 당의 명도따라 백투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을 총대로 굳건히 보위하고 끝까지 계승완성해나갈 확고부동한 의지를 표시하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원수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 공화국 인민무력상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탄생 105돌경축 열병식을 시작하겠다는 것을 보고드리었다.

열병시작을 알리는 신호나팔소리가 광장에 울려 퍼졌다.

《김일성장군의 노래》와 《김정일장군의 노래》가 장중하게 주악되는 가운데 21발의 예포가 발사되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최룡해동지가 축하연설을 하였다.

광장에 《수령님과 장군님은 함께 계시네》의 노래가 장중하게 주악되는 속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태양상을 모신 초상기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의 태양상을 모신 초상기가 조선인민군 장

령, 군편들의 호위를 받으며 들어섰다.

조선인민군 육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로동적위군병예위병대와 전체 열병대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초상기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의 초상기를 우리러 가장 숭고한 경의를 드리었다.

열병행진이 개시되었다.

《김일성대원수 만만세》의 노래주악이 울려 퍼지는 광장으로 항일무장투쟁시기종대, 정규무력전설시기종대, 조국해방전쟁시기종대가 열병대오의 앞장에서 보무당당히 나아갔다.

전체 참가자들은 당과 수령을 따라 항일의 혈전만리, 전회의 불바다를 헤치며 주체조선의 백전백승의 전통을 창조한 선군혁명의 제1세, 위대한 년대의 승리자들에게 경의를 표시하였다.

이어 김철히 육군소장이 이끄는 근위 서 울제3보병사단을 선두로 김광철 육군소장, 전일 육군소장, 리성국 육군소장, 김성호 해군대좌, 김정남 항공군사좌를 위수로 하는 근위 서울김책제4보병사단, 근위 강 건제2보병사단, 근위 서울류경수제105당 크사단, 근위 제2수상합전대, 근위 제56

김지상영웅추격기련대를 비롯한 근위부대 종대들이 기세충천하여 광장에 들어섰다.

조국수호전과 반제반미대결전에서 빛나는 위훈을 아로새긴 자랑스러운 군기들을 앞세우고 행진해가는 근위대오마다에는 무적의 총대로 조국과 혁명, 인민의 안전을 믿음직하게 보위해온 성스러운 역사와 전통을 이어 주체의 사회주의위업을 굳건히 수호해나가는 우리 혁명무력의 전투적기백이 용솟음쳤다.

《조선인민군가》, 《오늘도 7천대는 우리 앞에 있어라》, 《당중앙을 목숨으로 사수하자》 등의 혁명군악이 울려 퍼지는 속에 김명식 해군상장, 김병혁 항공군상장, 김일웅 전작군소장, 김영복 육군소장이 인솔하는 조선인민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전략군, 특수작전군종대와 김성찬 육군소장, 방두섭 육군소장, 리성국 육군소장, 양홍운 육군소장을 위수로 하는 제1, 2, 4, 5군단 등 조선인민군 대면합부대종대들, 최길봉 육군소장이 이끄는 제46보병사단종대들 비롯한 전선군단 제1세대 보병사단종대들이 광장을 지나갔다.

당중앙위원회 프락의 문건보초병, 조국

의 최전방을 지켜선 전초병의 영예를 안고 원수들이 이 땅위에 전쟁의 불을 지른다면 조국통일대사변의 첫 총포성을 울리며 백두산봉개와도 같이 달려나가 칩락의 이성을 단때에 깃부실 멸적의 의지가 열병대오물에 끓어났다.

김일성군사종합대학, 김일성정치대학, 김정일군사연구원, 김정숙해군대학총대가 한창순 육군소장, 차경일 육군소장, 림태군 육군소장, 김성식 해군소장을 따라 나아가고 최영호 항공군소장, 황갈철 육군소장, 차동일 육군소장이 지휘하는 김책항공군대학, 강건종합군관학교, 오진우포병종합군관학교 등 항일혁명투사들의 이름으로 자랑스러운 각급 군사학교종대들이 용기백배하여 행진해나갔다.

군사교육혁명의 불길속에서 백투의 넋을 지닌 신념의 최강자, 주체적인 군사전략전술사상과 전법을 소유한 다병종지휘관들로 역세계 준비해나가고있는 안락으로 멋진 최정에혁명강군의 핵심들간들에게 군중들은 열렬한 박수갈채를 보내었다.

5 번 으 로 계 속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탄생 105돌경축 열병식 및 평양시군중시위 성대히 거행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참석하시였다



4 면에서 계속

선군혁명위업의 믿음직한 계승자들의 대오인 만경대혁명학원, 강반석혁명학원, 남포혁명학원총대들이 《백두의 행군길 이어가리라》의 주악에 맞추어 발걸음도 드높이 광장을 누비나갔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만세!》의 함성을 울리며 나아가는 열병총대들에 손을 높이 드시어 뜨거운 답례를 보내시였다.

사회주의조선의 승리와 영광의 기치이시며 강대성의 상징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를 걸사옹위하는 성세, 방패가 될 억척불변의 신념의 피성인양 열병대원들이 울리는 힘찬 발구름소리가 온 광장에 메아리쳤다.

우리 당의 자위적군사로선을 편철하는 길에서 강위력한 민방위무력으로 자라난 평양시와 각 도로농직위군총대들, 붉은청년군위대총대와 김일성종합대학, 김책공업종합대학을 비롯한 대학총대들이 한손에는 마지와

낮과 빛을, 다른 한손에는 혁명의 무기를 틀어잡고 조국보위와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영웅적기개를 남김없이 펼쳐갈 혁명의 명세를 안고 도도히 굽이쳐갔다.

우리의 영웅한 전투비행사들이 《105》라는 수자로 대행을 이루고 태양절경축의 축포를 울리며 광장상공을 지나갔다.

《무장으로 반들자 우리의 최고사령관》의 군악이 전감하는 속에 백두산혁명강군의 불패의 군력을 시위하며 기계화총대들의 장엄한 질의 흐름이 시작되였다.

김송철 육군상장, 박정현 육군중장, 오금철 항공군대장의 지휘자를 따라 탕크, 장갑차총대, 포병총대, 군중로케트총대들이 조선로동당기와 공화국기, 최고사령판기를 휘날리며 광장에 들어섰다.

정연하게 대렬을 짓고 높은 기동력과 타격력을 과시하며 나아가는 무지철마들과 자행정곡사포, 주체포, 방사포들이 우리를 압살해보려고 기승을 부리는 원수들이 조금이라도 움직인다면 금시라도 노오한 격멸의 불길을 내뿜을것만 같은 강철포신들

거연히 추켜들고 나아갔다.

도발의 본거지들을 섬멸의 타격권에 잡아넣고 하늘, 땅, 바다에서 무지비한 불벼락을 안길 우리 식의 위력한 로케트총대들의 장쾌한 동음이 광장을 전감하였다.

주체의 년분을 배다섯번세로 아로새기는 태양조선의 하늘가를 누비며 우리의 붉은 대열이 높은 비행술로 《105》라는 수자대행을 짓고 날았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확실히 선전지명파 대용단, 헌신의 로고속에 창설되고 병진의 기치높이 질량적으로 강화발전된 전략군로케트총대들이 리병철 육군대장, 김락겸 전략군대장의 지휘자를 따라 힘차게 전진하였다.

전대미문의 야만적인 정치경제적붕괴와 군사적압박으로 우리 공화국을 질식사하려고 날뛰는 날강도 미제를 비롯한 적대세력들에게 무지비한 철추를 내리고 조국과 민족의 천만년미래를 억척으로 담보해가는 우리 당의 믿음직한 핵무장력.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적로케트무력건설

사상을 빛나게 계승발전시켜오신 위대한 장군님의 정력적인 병도에 의하여 주체 88(1999)년 7월 3일에 창설된 조선인민군 전략군은 오늘 자위적억척체력을 강화하기 위한 특정한 도대로, 무적필승의 전투대로로 강화되였다.

고도로 소형화, 정밀화, 다종화된 핵무기들과 핵타격수단들은 적들이 우리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얼뜰만들이라도 건드린다면 지상과 공중, 해상과 수중 임의의 공간에서 침략파 도발의 아성을 순식간에 초토화해버리고야말 영웅적조선인민군의 불굴의 기상을 힘있게 시위하며 광장주식단열을 지나갔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한평생 걸으신 핵무장력강화의 길을 이어가시는것을 필생의 사명으로 간직하시고 깊은 밤, 이른새벽에도 위험천만한 시험발사현장들까지 찾오시여 국방과학자, 기술자들과 의논도 해주시면서 희생적인 헌신과 로고를 다 바치시며 우리 조국을 동방의 핵강국, 아시아의 로케트맹주국의 지위에 당당히 올려세워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감사의 정이 열병광장에 뜨겁게 굽이쳤다.

노도서 전진하는 기계화단대의 역센 모습 을 보면서 군중들은 역사의 모전 시련과 원수들의 온갖 도전을 짓부시고 당당한 핵보유국, 군사강국으로 솟아오른 백두산대국의 무진막강한 군력이 있어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는 확정적이라는 철리를 다시금 새겨안았다.

행진군악대가 《사수》라는 글발을 새기며 섹씩하게 나가는 속에 광장상공에 우리의 용감무쌍한 전투비행대가 오색부채살모양의 비행운을 새기며 열병식마감을 이채롭게 장식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탄생 105돌경축 열병식에 이어 평양시군중시위가 시작되였다.

영생불멸의 혁명송가들이 장중하게 주악되는 가운데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통상과 위대한 병도자 김정일동지의 통상을 정중히 모신 기발대열이 들어서자 광장은 또다시 격정의 파도로 세차게 설레이었다.

7 면으로 계속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탄생 105돐 경축 열병식 및 평양시군중시위 성대히 거행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참석하시였다



5 면 에서 계속

군중들은 주체의 광휘로운 빛으로 우리 조국과 인민의 존엄을 민족사상 최고의 경지에 올려세우시고 선군의 기치높이 사회주의위업을 승리로 이끄시어 후손만대의 번영을 위한 혼돈한 토대를 마련하여주시기 위한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과 경묘의 정으로 가슴눌러 이었다.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태양절을 맞이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긍지와 영광이 차넘치는 광장으로 공화국기폭풍대렬, 당기폭풍대렬과 청년들의 증폭대렬, 군인가족,

과학자, 교원, 보건의료, 체육인, 예술인대렬을 비롯한 각계층 시위대렬이 《주체의 영원한 태양》, 《위대한 수령님들께 최대의 영광을!》, 《사회주의 승리를 향하여!》, 《자력자강의 위대한 동력으로!》, 《원수님 계시어 우리 식 사회주의는 승리한다》, 《일심단결》,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 《만리마속도, 강원도정신》 등의 글말이 무각된 가장물, 구호관들과 함께 용용히 흘러갔다.

시위참가자들은 위대한 수령, 위대한 명도자를 모시고 준엄한 혁명의 년대마다 미증유의 변혁을 창조하여온 주체조선의 영광찬란한 행로를 감지높이 펼쳐보이며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제시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고지를 집행하기 위한 전민 총동원전에서 보다 큰 기적적성과를 창조하여 만리마속구대회장에 떼뿔이 들어설 철석의 의지에 넘쳐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의 유훈을 생생선으로 풀어내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두리에 철용같이 뭉쳐 자기 위업의 정당성과 자기 힘을 굳게 믿고 보다 큰 승리를 향하여 폭풍노도 쳐나가는 우리 인민의 앞길을 막을자 이 세상에 없음을 보여주며 주석단열을 지나가는 시위참가자들의 기세는 더욱 고조되었다. 세상에 없는 수령복, 장군복을 누리며

일심단결의 불가항력적위력, 자력자강의 위대한 동력으로 전진하는 주체의 사회주의 위업은 필승불패이라는 철리를 새겨주며 광장바닥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경축 4.15》, 《결사옹위》, 《자력자강》, 《조국통일》 등의 글말들과 당기, 공화국기가 편이여 펼쳐졌다.

총합군악대가 《김정은장군찬가》의 주악에 맞추어 특색있는 대형변화로 당마크와 당기를 새겨며 군중시위의 마감을 장식하였다.

군중시위가 끝나자 또다시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이 하늘땅을 진감하였으며 경축의 속도가 리적오르고 고무용선들이

날아올랐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주석단열에 나오시어 열광적으로 환호하는 군중들에게 따뜻한 답례를 보내시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탄생 105돐경축 열병식 및 평양시군중시위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사상과 업적을 옹호고수하고 만대에 빛내이며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쳐 주체혁명의 최후승리를 향해 질풍노도쳐나갈 천만군민의 일심단결의 위력과 백철불굴의 전투적기상을 만천하에 힘있게 과시하였다.

본사정치정보단



